꾸뻬씨의 행복여행

32143654 이지영

꾸뻬씨의 진료소는 언제나 진료를 받으려 온 환자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꾸뻬씨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함을 깨닫고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날 결심을 했다. 자신이 어릴적에 읽은 책에 나온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거란 기대를 품고 먼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중국에 도착했을 무렵 실망을 금치못했다. 산자락과 바다 옆에 위치했다는것 빼고는 그가 살던 도시와 다를게 없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친구를 만난 후,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홀로 산길을 걸어가다 ‘츄린 사원’ 에 도착했다. 그는 사원 안에서 한 도승을 만났다. 꾸뻬는 노승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여행을 끝낸 후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말만 들었다. 그 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의 주위로 많은 걸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사 양반” 이라 외치고 있었고 몇몇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꾸뻬가 도착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가 매우 큰 나라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나라에서 불행을 행복만큼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또 비행기에서 만난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었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를 탔다. 그러나 그가 잠든 사이 자동차가 납치를 당해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까지 끌려갔다.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운이 좋아 풀려났다. 그는 이 날 이후로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함을 느꼈다.

여행이 끝나갈 즈음 그는 처음에 만났던 노승을 찾아갔다. 노승은 꾸뻬의 노트에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다. 꾸뻬는 노승으로부터 자신이 행복의 요소를 거의 다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노승이 무슨 조언을 해줄 줄 알았지만 칭찬만 들어 실망하였지만 이내 평정심을 다시 되찾았다. 노승은 그에게 작별의 선물로 중국식 찻잔 2개를 주었다. 꾸뻬가 노승과 작별인사를 하고 찻잔을 가방 안에 넣으려 하자 종이 쪽지가 보였다. 종이 쪽지에는 꾸뻬가 자신의 수첩에 메모해 놓았던 배움 중 3가지를 뽑아놓은 것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행을 끝내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 정신과 의사 일을 계속 하였다.

행복이란 흔하디 흔한 단어지만 한편으론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아도 실천이 어려워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사람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등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원하지만 행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내가 만약 꾸뻬씨라면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우울함이나 자기연민에 빠져 현실에 안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행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 떠난 꾸뻬씨의 도전이 멋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상속에서 행복을 고민할 여유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선진국에 수도 파리에서, 의사라는 부와 명예로운 직업이 있고 당장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행복여행이 아니였나 생각한다. 오늘 당장 행복여행을 떠난다면 직장에서 버려지고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현대인들에게 행복이란 너무 먼 존재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일상속에서 행복을 찾으라고들 말한다. 일상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연히 작년에 입었던 옷에서 돈을 발견한다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안놓치고 바로 타는 것들도 행복에 포함될 수 있을것이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얻어지는 것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